

주일의말씀

사랑의 다른 이름은 함께하기입니다



허남호 마르코 신부
성북성당 주임

몇 년 전 비영리 단체의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신부님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정신이 “고객의 신을 신고 걸어보기”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는 성당이나 복지 시설 같은 비영리 단체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시간의 첫번째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지어 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으로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질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곧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 꽤 고민한 기억이 납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 그리고 작은아들의 공통점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들은 그 곁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잃은 양을 뒤쫓아가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살살이 뒤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 곳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헤어져 있음의, 떨어져 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떨어져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주인과 아버지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나 봅니다. 결국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게 된 모두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부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되찾았거나 돌아왔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일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집 밖에서 농성중인 큰아들마저도 아버지에게는 함께 하고픈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주인들에게 사랑의 다른 이름은 ‘함께하기’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들과 함께 지내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못마땅한 이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통해 잡나간 자식을 모으려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을 봅니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주로 보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과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과과는 다른 자리에서 있음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제가 머무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 그 이유가 무엇이든 - 다가가기를 간절히 청해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의 춤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잔치가 벌어지길 더욱 간절히 청해봅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구주보

생명의말씀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참조

탈출 32:7-11, 13-14 티모 1:12-17 루카 15:1-32

사회교리를 아십니까?

교구 사목국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진보와 보수,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의 양극화, 가정과 혼인의 위기, 생명경시와 환경파괴, 이주 노동자 문제 등등.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여해야 할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상과 교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사목헌장 1항).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4항)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임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진선미는 무엇이든 보호하고 승화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화를 견고하게 한다”(76항).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

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성찰함으로써 교회와 신자 개개인이 어떤 태도로 사회 문제들을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사회교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존엄성, 정치공동체, 국제공동체, 경제생활, 환경보호, 평화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황님이 반포한 문헌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가르쳐왔고, 최근 교황청에서는 「간주린 사회교리」를 출간 하였습니다.

사회교리는 어떤 정치·경제적 체제나 이념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선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회교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마땅히 사회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세상일에 대한 바른 복음적 판단과 복음적 삶의 행동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신앙과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는 더욱 공부하고 더욱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돌아 오도록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4주일

입당 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화답 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 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파견 성가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영성의 향기

:: 가난한 사람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현대의 우리 영성의 모델로 마더 테레사를 지목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이지는 것, 물질적 풍요와 최첨단 기술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그래서 기술 문명 뒤로 내몰린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소명으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들, 비 종교인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오셨던 마더 테레사의 영성과 삶을 작게나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받은 성소의 특유성과 영성의 고유성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한다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먼저 의식주의 결핍인 물질적 가난과, 다른 하나는 정신적, 영적 가난으로 소외감 외로움, 이기주의, 윤리의식의 결여, 애정결핍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결여입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그것이 충족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으나 영적, 정신적 가난은 개인이나 가정, 사회를 병들게 하고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고통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모두가 함께 그 가난을 나눌 때 사라질 수 있고 영적 정신적 가난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과 봉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주원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미소는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 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 할 수도 없으며, 빌려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 움켜온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교구설정 100주년 맞이
‘영호남 사랑 나눔 음악회’

- 일시: 9.5(일) 19:30, 전주모악당(전주) 9.12(일) 19:30, 오페라하우스(대구)
- 주최: 대구가톨릭음협,전주가톨릭합창단 공동
- 문의: 011-5140001, 입장료: 1만원

생명평화미사

- 일시: 9.13(월) 19:30, 고산성당
- 제4회 대구평화방송 사장배 배드민턴대회
- 일시: 10.9(토) 9:00, 대구시민체육관
- 참가요강: www.dgpbcc.co.kr 참조
- 문의: 251-2610

전례꽃꽂이 전시회

-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제대꽃꽂이 봉사자 강좌반 1기생 졸업작품전
- 일시: 10.1(금) 12:00-4(월) 14:00, 교구청 별관층

제2회 성경암송 발표대회 안내

- 일시: 11.21(일) 예정(cafe.daum.net/biap)
- 신청: 10월 한달(각본당 공문발송 예정)
- 문의: 성서사도직 250-3082

★ 피정 / 성소모임 ★

전교가르멜 성소모임

- 수시면담(010-2646-7765 임루치아수녀)

예수의 가리파스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9.18(매월 셋째주 토 19:00~21:00)
-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천주의 성 요한의료봉사 수도회 성소안내

- 일시: 9.19(일) 14:00, 서울 수도원
-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업 사도직에 관심있는 청년, 일반인
- 문의: 010-3800-1579

vocationh@hanmail.net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상담

- 시간: 08:00~17:00 언제나 가능
- 문의: 622-4408(carmelkg@hanmail.net)
- 매월 첫토요 기도 17:00(대상: 젊은이)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셋째 주일 14:00
- 장소: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
- 문의: 이인성 필립보대리신부 010-31697416

성빈첸시오아바오로시라의말회 성소모임

- 모임 시간: 14:00(매월 셋째 주일)
- 장소: 계산동주교좌성당(빈첸시오회 회합실)
- 문의: 010-6625-0927

★ 모집 / 교육 ★

제1기 와인즐거기과정 모집

- 기간: 9.13(월)~12(주) 1회 2시간 18만원
- 내용: 기초부터 쉽게(오전.야간)시음비별도
- 장소: 대가대평생교육원(감삼동구, 매일) 3곳
- 대상: 와인관심있는 일반인, 대학생, 직장인
- 문의: 526-3413 / 010-3810-2179

틴스타 성교육 : 총체적인 성

- 일시: 9.13(월)부터 매주월10:30(총 10회)
- 장소: 교구청 별관 2회합실
- 대상: 30~40대, 문의: 010-3823-9007

성인 ABC 영어반 모집

- 개강: 9.14(화) 13:00
- 수업: 매주 화·목 13:00(주 2회)
- 문의: 새빛학교(교대역) 476-3100

적은돈으로 큰돈 버는

대가대 부동산매매재테크과정

- 개강: 9월 중 8주 과정(수,목)
- 1:1 멘토링 교육, 무료재수강 가능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8회 대학생 필리핀해외봉사&어학연수

- 3차 9.29~11.25(8주), ~12.23(12주)
- 필리핀·캐나다, 호주(연계연수가능)
- 문의: 대구시 청소년수련원 593-1273

장애인 생활시설(그룹홈)입주자 모집

- 시설명: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
- 대상: 18세이상 지적,발달장애인 30명
- 기초생활수급자/독립의지 강한자

- 장소: 남구지역 아파트 및 주택
- 문의: 가톨릭사회복지회(253-9991)

아동을 위한 통합예술테라피

- 일시: 10.6(수)~11.24(수) 8회기
- 푸른평화제니퍼배 레전콘서트
- 일시: 10.8(금) 19:00
-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한티순 교성지 후원회 월 모임(054-975-5151)

성지의 보존과 개발에 함께 할 후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회원의 구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 특전: 모든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월회 봉헌, 사망시 연미사봉헌,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발급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 어린이강좌: 미술교실, POP, 바이올린, 플룻
- 전문과정: 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POP
- 성인강좌: 플루트, 바이올린, POP, 요가

가톨릭요셉발간회 강좌 '빌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세 및 도구포함 10만원)
- 홈페이지: www.foodfather.com

★ 안내 ★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강대일, 김일권

5대리구 가나강좌(054-468-5400)

- 일시: 9.12(일) 13:30~17:00, 5대리구청

9월 가나강좌(1인당 2만원, 당일접수)

- 일시: 9.19(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외대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 검진

- 대상: 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 1차 암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됨)
-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9월 13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 -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9월 13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 -월성성당	기두선교단 월례미사	9월 14일(화) 오후2시	성모당

대구 큰사랑요양병원

-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 ▶ 한의사 진료 ▶ 중풍, 팔기압,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지현 이사

한신주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넬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방충창고 모은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매체오) 011-529-7501

여러분의 건강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성재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 검진, 5대암 검진, 각종 종합 검진

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천제명 홍삼

홍삼톤 F60 포(1+1)행사
홍삼순액, 절편, 홍삼농축액, 어린이홍삼

30%~10%

이옥이(살비아) 053-793-5325

범어 램브란트 치과

원장 김대호(마지아)

범어네거리 삼성중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사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엄(노나)